

# 농산업분야, 투자대비 고용 효과 높다

노동생산성, 일반 산업에 비해 낮지만 청년 실업 해소 돌파구로 농산업의 역할 높아

농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일반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나 투자대비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마련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업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를 주제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청년 실업 해소 돌파구로 농산업의 역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분석결과 2016년 국내 청년 실업률은 10.7%로 일본의 2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지난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비자발적 비정규직, 그냥 쉬는 청년

등을 포함할 경우 청년 체감실업률은 34.2%로 급상승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는 농림축산물 생산과 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재(종자, 비료, 농약, 사료, 농기계, 농자재 등) 관련 산업 및 농림축산의 가공, 유통, 판매와 관련된 산업 등을 포함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된 농림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관련 업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 농림축산물을 활용해 가공, 유통, 판매하거나 이를 관광과 연계해 관련 업종의 고용이 새롭게 창출되거나 유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특산품으로 잘 알려진 금삼 인삼, 곶감, 복분자, 상주 꽃감, 문경 오미자 등은 관련 업종에서 고용이 눈

에 띄게 증가했다.

통계청에서 분석한 2006~2014년 지역특화산업 관련 고용 변화를 살펴봐도 금삼, 곶감, 상주 지역의 고용 증감률은 109~224%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산업부문 성장률 및 취업계수 분석 자료에서 2023년까지 농림서비스·식품가공·유통부문에서 6000~6만3000명 고용창출 효과를 얻어 총 24만 명 정도가 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농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인력 수요, 인력 공급, 정책 시스템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업 분야의 경우 고용 창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좋지 않아 청년 고용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일과 휴가가 명확히 구

분되지 않아 이직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요한 농산업 인력의 가장 중요한 배출처인 농업고 및 농업대학 등 농업계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산업체와 적극적인 교육 및 진로 연계활동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농산업 분야의 적절한 고용 시스템마저 미흡한 편이다. 농산업 정책이 대부분 세부 산업 부문별 인프라 투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관련 인력 육성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농경연의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학 협력 활성화, 농산업 고용의 질 개선, 고용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농업계 학교 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중간 과정에 대한 정책의 정교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농협, 농촌일손돕기 '올인'

양파 수확 작업·포도재배 농가 봉지 씌우기 등 실시

전북농협은 가뭄, AI,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인을 위해 동일가능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다.

13일 전북농협은 농촌사랑방국민 운동본부 농촌사랑위원회와 지역본부 임직원, 고산 농업 직원 등 40여명과 함께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원수선마을 국유일 농가를 찾아 양파 수확 작업 등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와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했다.

농촌사랑방국민운동본부는 농업인 행복버스 및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농촌일손돕기 등 고품화와 이농으로 인한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촌사랑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한 범국민적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본부 경제지원단과 춘향골농

협은 지난 9일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원시 금지면 소재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봉지 씌우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농협시료 전북지사와 군산비이오는 지난 8일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원조마을에서 직원 20여명이 감자를 수확하며 농촌일손을 거들었다.

또한, 직접 수확한 감자 150박스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마을 주민들과 지사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수확 후 관로 문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태호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가능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이달말까지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직불제 이행점검 실시로 보조금 투명성 확보

농관원,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직불제, 밭고정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16만4,000호(17만4000헥타)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에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농관원 흥민의 지원장은 "올해는 모

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지 2년차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책자금의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북지역 직불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쌀직불제는 9만2,996호(13만16,507ha), 밭고정직불제 6만4,574호(3만13,602ha) 조건불리직불제 6,136호(3,430ha)이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청년 창작가 '작은창업' 교육생 모집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창업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청년 창작가 '작은창업' 2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만 20세~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청년창업과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창작가 '작은창업' 과정은 2단계 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1단계 청년창업-V과정은 생계형창업, 작은창업, 기술창업 공통 기본 교육이 제공되고, 2단계 청년창업-S과정은 핵심역량을 보유한 소규모 창업을 위한 작은창업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실질적인 창업지원으로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1단계 과정 수료생 최고 2,000만원, 2단계 과정 수료생 최고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과정으로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100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이대훈 농협금융 대표, 임실 AI 방역현장 방문

이대훈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13일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임실군의 방역현장을 방문했다.

이대훈 대표이사와 상호금융 및 전북본부 임직원들은 이날 오후 임실군 관촌면에 위치한 AI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확인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임실축협 방역상황실을 찾아 관내 피해현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추진 대책, 농협의 지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훈 대표이사는 "AI 발생으로 전북지역은 물론 전국 농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농협이 AI 종식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신보-기업은행, 창업·일자리창출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은 13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새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 기업은행과 '창업·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신보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4차 산업 우수 창업기업에 특별출연금의 20배에 해당하는 2,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기업은행의 보증료 지원금 100

억원을 기반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뛰어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는 우수 창업기업에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하고 5년간 보증료를 0.3%p 차감할 예정이며, 기업은행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0.2%p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최대 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할 계획에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 사랑의 집수리 활동 펼쳐

전북우정청은 13일 임실군 임실읍에서 우정청과 임실우체국 직원, 임실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사랑의 집수리 활동이 펼쳐진 임실읍 강모(51세)씨는 지체장애자로 몸이 불편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래된 집의 벽지와 장판이 노후화가 심하고 화장실 타일이 훼손되는 등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낡은 타일과 벽지·장판을 교체하는 등 집 내·외부를 맡김히 수리하고 청소했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했다. /인재용 기자